

社説

사회의 권위를 회복하자

그 지도이념은 자주·민주·통일이다

새학기가 내일이면 시작된다. 개교 83주년과 창국의 80년대를 마무리하는 올해 초·중·고·대·대의 진로는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비롯 한 대학 개별 구성원들 스스로가 대학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동국중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노력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학생운동의 선도적인 투쟁들이 가열차게 벌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민도의 허리를 자른 채 40년 넘게 휴전상태로 군사적 대결구조의 지속, 미국의 대조선전 기지로서 작전지휘권도 없이 핵 불포가된 조국, 이류민주와 추진, 체제수호를 빌미로 정권수호에 여념이 없는 군사독재정권의 계승자들, 이에 결박한 천 마새미대판관들이 우리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려는 현시기는 다시금 민중세력과 반민주 세력과의 대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발전과 진보를 향한 변혁의 중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외적으로는 사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각계의 흐름은 민중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반동의 기운이 없지는 않은 나 이를 해치고 나가려는 민중의 각성과 결의는 더욱 굳건하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

반미감정을 똑바로 파악해야

미국대통령 부시의 한국방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대미 애국성과 아울러 반미감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지난달 27일 부시는 한국에 와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 국에대한 안보를 구실로 미국 군의 조속한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를 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노정권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밝혔다. 그것이 한국인의 의사와는 상반없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당일 전국 각지에서 표출된 반미감정을 부시는 미국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독재지원 내정간섭 부시방한 결사반대!」, 「한민족을 깨달라 핵무기를 즉각 철거하라」 등의 구호에서 보듯이 반미감정이 단순한 미국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과 성숙에서 저절로 마다 움직여야 한다. 부시는 비록 5시간 남짓한 시간을 이방에 머물렀지만 미대사관과 서울 시내 곳곳에 전경들이 집중배치돼 있을 정도로 우리국민들이 그의 한국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반면에 그나마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의 한국방문은 실패작일뿐더러 한·미 양국 국민(결정권이 아니라)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력을 줄이면 종일수축 한국군의 안보는 보장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정착된다는 상반변화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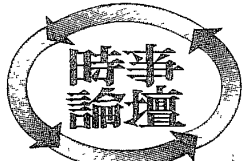
「타임스피리트」훈련으로 「남북대화」가 번번히 중단되고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한국주둔 자체가 미국의 패권주의와 외적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타임스피리트」훈련은 즉각 중지돼야 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주한미군은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

둘째, 미국 「U I P」사의 외국영화 국내시장점유율에 따른 민족문화의 말살위기관리, A F K N 방송의 국내 V H F 2 채널의 「점거」 사용 뿐만 아니라 채널 3~6까지를 주한미군이 사용해 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제·문화적 침략과 한미간의 불평등관계의 해결없이 「우호·선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소련과 함께 우리민족을 분단시켰던 죄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최소한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教育財政의 비합리성 대학발전 저해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와 재단의 지원·보조 앞서야



대학은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대학이 받고 있는 도전을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도전을 사회적



裴鍾根 <사범대교수·교육경제학>

서의 도전이요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은 대학 내부에서 오는 도전이며 마지막 도전은 국제경쟁에서 오는 도전이다. 사회는 사회에 필요한 수준 높은 교육을 대학이 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학내에서는 학생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좋은 교수와 시설을 갖추지 않는 교원을 늘려서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교수는 教授=學問의 기본전제는 물론 연구의 체제도 갖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

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産室인 대학이 지식과 기술의 국제경쟁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데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도전을 시급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해결은 말이나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대학다운 절려된 뚜렷한 대학의 재원을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재정은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을 규제하며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대학의 질의 수준을 재정적으로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당교육비는 4배가 되고 교수당 학생수는 3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재정지표로 대학교육의 질을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지표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비교하는 근거는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대학교육은 국민의 평균소득(월50만원)의 25%수준이 되는 높은 수준인데 비하여 왜 대학의 교육여건은 외국에 비하여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 해답은 대학의 財源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학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의 출처는 크게 정부지원, 재단지원, 등

여기에서 우리의 대학의 재정적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보조, 재단지원 그리고 기부금등의 다원적인 재원이 마련되어 운영되나 우리의 사립대학은 오직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된다는데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증가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교육예산은 정부예산의 20%로써 더 이상의 증가가 어려우며 사학재단의 지원이 요청되나 사학재단에는 수익재산이 없는 점이다. 또한 학생등록금의 인상

사회자원을 대학에 유입할 정책이 요청돼

로 분석하는데 쓰이는 가장 중요한 指標은 학생당교육비와 교수당학생수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당교육비는 1백40만원(2천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선진제국의 4분의 1의 수준이며 우리와 비슷한 국력을 가진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2분의 1의 수치에 불과하다.

한편 교수당학생수를 보면 우리의 경우는 37명이다. 그러나 일본은 11명, 영국은 14명, 서독은 8명, 이스라엘은 10명이며 싱가폴은 18명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대학은 교수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주요요소에 비하여 3배가 많은, 뒤 떨어진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교육의 질은 재정지표에서 볼 때 선진국의 12분의 1 내지 15분의 1의 수준이

등록금 그리고 사회나 기업 또는 개인이 내는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사립대학의 재원구조를 보면 전체대학교육비의 40%를 정부가 보조하며 22%의 경비는 재단이 부담하고 9%는 외부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학생등록금은 전체대학예산의 37%에 불과하다.

일본은 대학의 경우 정부보조비율이 전체의 20%이며 등록금 의존율은 전체의 40% (기부금포함)가 되고 있다. 영국은 18%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대학은 정부가 보조하는 88%이며 학생등록금은 전체교육비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비하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재원구조를 보면 정부보조는 1%에 불과하며 사학재단의 지원은 5.5%이며 학생등록금의 비율은 전체대학교육비의 82%에 이르고 있다.

은 한계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과업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학교육, 특히 사학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사학은 사학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사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절약하여 사학자원을 크게 확대시켜야 한다.

학생당교육비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학생등록금에 포함하여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대학교육비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재원은 학생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재단이 정부나 누구의 도

움도없이 대학을 설립한 공은 너무나 송고하다. 그러나 대학을 만들었다고 하여 재단의 책임은 다한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아이만 낳기만 하여도 부모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를 잘 키우야 부모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단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재원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비수익재산의 활용방안이나 대여방안, 또는 대학기부자에 대한 재단의 소극적 태도는 버려야 하며 재단이사회의 재산재생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可 用 資 源을 대학에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기업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 것으로 대학에서 공급 받는다. 따라서 적어도 기업은 이 공 것에 대한 비용을 대학에 환원하여야 한다. 민간자본이 커져야 따라 개인의 공공사업에 기여할 욕망도 커진다. 대학은 이것을 위하여 대학의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대학도서관이나 중요한 시설 또는 연구에 이러한 기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입학기부금의 준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는 논의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입학으로 백명의 등록금을 면제시킬 수 있다면, 최선의 기계를 그것으로 구입하여 그 학과학생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대학 재정의 질을 높이는 마지막 방법은 등록금의 인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의 등록금의존도는 너무나 높으며 따라서 등록금의 일반화적인 인상이 전에 정부의 보조, 재단의 지원, 기부금의 증가가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재단의 보조나 지원이 없고 기부금의 규모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의 동결은 결국 대학의 질의 하락을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운동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극복하고 시민과 학생이 단결투쟁해야 함을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시민에게는 빈민지역내에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여내고 존재하는 세입자대항투와 주민의 결함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빈민과 학생의 연대수준을 고 양시킬 수 있는 조건, 즉 지역과 학교의 합리적인 연대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철저한 대우

이 급격히 분출되고 있음에도, 도시민에 대한 인식은 남한사 회변혁운동 전체과정 속에서 물 바를 위상정립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과정의 해결이 단순히 뛰어난 이론의 제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을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 역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제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의 주체가 능동적으로 실천해낼 때만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과대 철학과>

빈민활동

막연한 민중지향성격을 극복

이 은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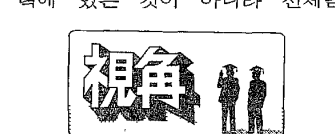
빈민활동이 처음으로 지난 1월 말 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제로 진행되었다. 과연 청년학생과 도시민간의 감정적 연대를 위하여 어떤 민주변혁에서 연대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 도시민간의 협력과 정, 빈민의 원인을 파악해보자.

남한사회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체제로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은 남한사회에서의 자생적 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을 차단시키면서 세계자본주의와 수직적 국제분업관계속에 자기재 생산 기반을 두는 「저임금구조」를 축적의 근거로 삼게 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저농산물 가격정책이나 해외농산물 수입통을 통해 자본계 부분을 위한 저임금노동력의 공급을 통해 농업부분을 파괴시키고, 동시에 낮은 수준의 노동력재생산의 유지를 위한 수탈기제로 그 위치를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농민의 하강노릇을 축적시킨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빈곤에 의한 도시로의 압력요인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의 파업인구는 60~70년대 의

자도일에 의한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통한 이동을 매개로 해체되어 대부분 불안정, 불안정 그 용 중심의 경제적 형태의 도시 파업인구로 전환한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민간의 빈곤의 원인은 결코 개인의 무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사회의 자본축적과정속에서 파생되는 모순구조에서 형성, 재생산되는 존재이며, 그들의 생활면이 이러한 모순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도시민간의 빈곤에 집단적거주는 것은 신식민

학생과 빈민의 연대를 마련 계기

지자본주의체제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된 채로 불안전한 취업상태나 반일업상태속에서 도시민민가구의 노동력재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전략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상황은 남한의 도시민에게 서구의 슬럼가의 형태와는 달리 운동성을 갖게 한

東國漫評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 보리음료

해태 보리텐



주식의 명문
해태음료

변혁 그 주체를 찾아서

I. 들어가는 말

열악한 주거환경,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러한 각박한 현실앞에 도시민들은 항상 무기력하고 수많은 신세타령속에 산듯해오다 해보고—세상의 고통은 일관한 찾아서 간간히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변하고 있다. 철거반대투쟁속에서, 노점상단속저지투쟁(이하 노점상투쟁) 속에서 단결된 힘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단결된 투쟁을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회의 주인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철거민들이 하나로 묶인 서울 시 철거민 협회(이하 서울철거민)를 비롯하여 노점상들의 조직인 도시노점상 연합회(이하 도시노점상)를 만드는 등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으로 펼쳐 일어나고 있다.

II. 도시 빈민 운동의 현황과 과제

1) 88년 도시빈민운동의 평가

87년 6월 민주화 투쟁이후 민중들의 권리의식이 확장되었고, 또한 정권의 개방공세와 병행하여 법적, 정치적 운동공간이 확대되었다. 특히 대선·총선등 집권세력

의 지배질서 재편과정과, 결부되어 이러한 대중적 각성은 각계 각분야의 생존권 요구와 권리의식을 부추켜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건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별, 사안별, 지역별 조직사업은 연대조직과 공동투쟁으로까지 발전되어 87년말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내에 도시빈민 공동대책위원회의 건설로 이어지고, 각부분별로 전국적인 통합·연합조직을 결성 또는 지향하는 등 양·질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88년 도시빈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안별로 공동의해를 갖는 조직간 일종의 차이와 분절은 대중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있다. 일상적인 연대·공동투쟁을 조직하기에는 아직까지 이해의 일치점과 공동투쟁의 매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권의 재개발발발유보와 임대주택 정책발표, 노점상 양성과 보호법제정 전방, 낙하업입 추진, 도시열세민 의료보호법 제정등 당면한 개방국면(그만큼 대중투쟁의 성과에 기인하자)에 대처해야할 기동성과 교활적인 지도력이 부재하다.

즉 과학적인 운동론과 지도력의 부재가 지적될 수 있다.

2) 도시빈민운동의 흐름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도시빈민운동의 과제는 『다양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도시빈민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대중조직화의 관건은 대중투쟁전선

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대중들의 힘으로 조직을 지탱해 가는가』에 있다.

즉 과학적인 운동론과 지도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직사업은 선진활동가(대중출신이든, 인텔리든)의 배치와 당면투쟁과 동떨어진 변혁운동을 이해하기위한 의식화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그러한 사업의 동력은 이

투쟁이후 생존권과 기본권의 구속에서 도시빈민의 증폭된 조직화와, 지난한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도시민들의 한계에 가까운 투쟁대열의 참여와 높은 정치성향은 지역사회조직, 또는 지역활동의 가능성으로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건을 충족적으로 인지하지 못한채, 사업화

투쟁이후 생존권과 기본권의 구속에서 도시빈민의 증폭된 조직화와, 지난한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도시민들의 한계에 가까운 투쟁대열의 참여와 높은 정치성향은 지역사회조직, 또는 지역활동의 가능성으로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건을 충족적으로 인지하지 못한채, 사업화

4) 88년 도시빈민「공·투·위」의 평가와 계승

우리는 이러한 범주에서 88년 8월28일 결성된 상설공동투쟁체로서의 도시빈민공·투·위를 올바르게 평가, 계승해야 할것이다.

정을 조직하는등 일정한 모범을 창출했다.

그러나 도시빈민공투위는 서철협, 도노련 양대중조직의 하부단위 대중간의 연대와 일상적인 교류를 전인하지 못한채,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또한 각대중조직과 운동단체의 내부문제에 매몰되어 노점상을 비

도시빈민 운동의 흐름

대중의 주체성강화가 운동의 원동력

합집산된 선진활동가의 회의나 선전·교육으로만 해결되는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대중투쟁전선에 어떻게 대중들을 동원·배치하고, 그 투쟁을 통해 조직을 추동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들의 의식화란, 어떻게 대중투쟁과 대중조직의 건설을 통해 도시빈민의 연대·일단의 의식을 고취하면서 조직속에서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지, 고립된 자기부정속에서 어떻게 변혁을 이해하게 할 것인가가 아닌 것도 분명하다.

즉 전자의 평가에서 배어나오는 명망가적 속성, 뿌리성과의 단결=대중의 주체성의 강조는, 지금까지 도시빈민운동의 일관된 흐름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동의한다면 89년을 맞아 우리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3) 도시빈민운동 발전의 객관적 조건들

우리는 도시빈민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앞서 몇가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 부분운동으로서의 도시빈민운동의 발전에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

첫째, 현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속에서 가장 증폭되고 '미조

동의 일부분과 운동성간의 강조는 도시빈민운동을 지역근거지 운동(조직의 지역적 편제와 지역근거지는 엄밀히 다름) 또는 전 투쟁투쟁력의 확보로만 오도시키 기도 했다.

심지어 철거반대투쟁의 위상을 여기에 접목시키려는 환상까지 자아내면서 소위 지역수호의 편향성, 도시빈민 존재에 대한 주

이러한 점은 도시빈민운동의 발전속에서 지난 운동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면서 한계와 오류를 비판, 극복하는 길이 올바른 조직투쟁과 건설로 이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88년 이전까지의 도시빈민운동은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철거반대투쟁과 노점상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철거반대투쟁에서도 87년까

못한 제반의 사업과 조직(단체)을 견인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빈민공·투·위는 각대중조직의 내부고민과 자기이익에 매몰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에 분산된 대중사업과 운동단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는것, 그것이 바로 부



의 의고있었다.이두이강제철거도시재개발지역의세월들이철거에앞서향가운데를유하며철거기초해준상제들을세인자73가구

대중의 자주조직 건설이 현안과제

조직에 근거하지 못한 운동은 스스로 질곡 초래

도시 빈민운동, 지역활동에 새로운 가능성 제시

조직적인 존재에 대한 자기부정(집단적)인 것이다.

그러나 도시빈민이란 존재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부재와 전망의 모호함은, 도시빈민이란 존재가 역사적 사명성을 갖지 못한채, 다양한 대중들을 통일된 대중조직으로 조직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즉지적·대자적 투쟁이 도시빈민운동 출발의 근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두번째는 80년 광주·전남에서의 영웅적 투쟁이 무력으로 진압되고 군부파소의 철권정치에 한창이던 84년 폭동투쟁과 노점상들의 투쟁은 새로운 계기로 인식되었다. 전반적으로 민중운동이 침체되고 조직건설을 위한 재성산에 주력함때 폭동적 투쟁상의 폭력적인 향기는 대중투쟁대중조직으로서의 도시빈민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 세번째로 87년 6월 민주화 대

체적자각과 역사적 사명성을 상실한채 사회여론 호소에 주력, 그리고 투쟁을 위한 투쟁전선에 대중동원등은 과대해석 되기도했고, 여전히 이러한 편향들이 잔존하고 있다. 즉 대중동원을 집 단화, 역동화시킬수 있는 투쟁전선의 설정과, 투쟁성과의 조직적인 수렴과 전파에 기인하지 못하는 막연한 지역근거지, 또는 지역활동은 오히려 많은 운동량을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질곡시킨다 (예: 상수도 문제등 환경위생, 신용협동조합이나 기타 활동)

앞에서 제기한 대중들의 투쟁 및 사업성과 위에대하여는 명망가적 속성, 대중에의해 조직을 지어내지 못하면서 자기부정과 의식화만을 고집하는 잘못된 뿌리성, 그리고 조직내에서의 대중사업과 조직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막연한 지역활동등은 도시빈민운동의 보다 힘찬 발전을 위해 하

지의 대책없는 철거반대투쟁은 88년 주거근본대적 정책투쟁으로 발전했고, 또한 87년말 조직되기 시작한 노점상투쟁은 88년들어 폭발적인 양적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다양한 분산되어 있는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일용(건설) 노동자, 경비원, 청소부, 열세상인과 지역을 매개로 한 탁아소, 교회, 성당 아바들은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성을 정착시켜왔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사업과 대중사업을 기반으로 도시빈민은 도시빈민공투위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도시빈민공투위는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 도시 노점상연합회(도시노련), 철거민 도시빈민회, 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의 연대·공동투쟁의 기치를 내걸면서, 노점상과 철거민 대중간의 공동투쟁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관적인 도시빈민의 연대의식을 선전하고 투

문운동으로서의 도시빈민운동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5) 현단계 도시빈민운동의 과제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부분운동으로서의 도시빈민운동의 발전은 89년의 과제이다. 또한 이과제는 그러한 발전을 추동하고 집결할 수 있는 조직건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그 조직건설은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서 생존권 투쟁에 기반하여 기본권과 도시빈민 연대의식에의해 추동되는 대중조직의 건설이다. 그리고 부분운동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각지역에 분산된 대중사업영향을 결집시켜내고, 조직된 대중들에게 발전의 전방을 제시하는 연대·연합투쟁체의 건설이 기도하다.

그러한 대중투쟁조직의 건설은

◇글쓰는 차례

- ①학생운동의 평가와 향후과제
- ②재야의 역할과 조직과제
- ③노동자투쟁과 변혁운동
- ④농민운동의 쟁점과 당면과제
- ⑤여성의 실체와 운동의 과제
- ⑥도시빈민운동의 실태와 당면 과제
- ⑦시리즈를 마치며

도시빈민공투위의 평가·계승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서철협·도시노련 양대중조직의 통합, 그리고 하부단위와 대중의 연대에 의해 추동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존재를 통합하고 조직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추동력은 철거반대투쟁과 노점상투쟁의 경험 및 사업성과의 조직을 바탕으로 전파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동력을 현실화시켜 내세워야 할때, 보장사업, 신용협동조합, 지역탁아소등의 제반 교육활동, 그리고 그의 지역선교활동과 지역활동등의 조직사업을 보조하는 대중사업으로 올바르게 인도해내면서 지역적 토대까지 현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사업과는 다르게 대중사업은 대중투쟁전선을 가지고 대중의 힘으로 조직을 지탱해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조직사업과 대중사업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결국 서철협, 도시노련 양대중조직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양대중조직의 운동적 성과들을 전파하면서 미조직대중에 대한 조직사업의 지평을 열기 위한 과제인 도시빈민운동의 성정에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대중간의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연대, 그 결집력을 바탕으로한 경제투쟁의 강화 (즉지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추구 수준을 극복)와 일정정도의 정치투쟁 (특히 지방자치제와 노태우 신임문제, 그리고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까지)의 수행도 조직과제에 기반한다.

III. 맺는 말

우리는 앞에서 도시빈민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양한 분산되어 있는 미조직대중을 조직하는 일이 도시빈민운동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 조직화는 도시빈민 일반·연대의식에 의해 추동되어야하며, 그 동력은 철거반대투쟁과 노점상투쟁의 조직적 경험을 어떻게 조직에 바탕을 두면서 대중적으로 전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명망가적 속성과 뿌리적 사고, 그리고 막연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대중투쟁전선과 대중에 의해 보존되는 자주적 대중조직=도시빈민 연합의 건설이 당면한 과제인 것도 제시하였다.

조직의 업무는 간단하다. 조직이란 비타협적이고 자주적인 대중들의 투쟁에 대한 의지와 본능을 집단화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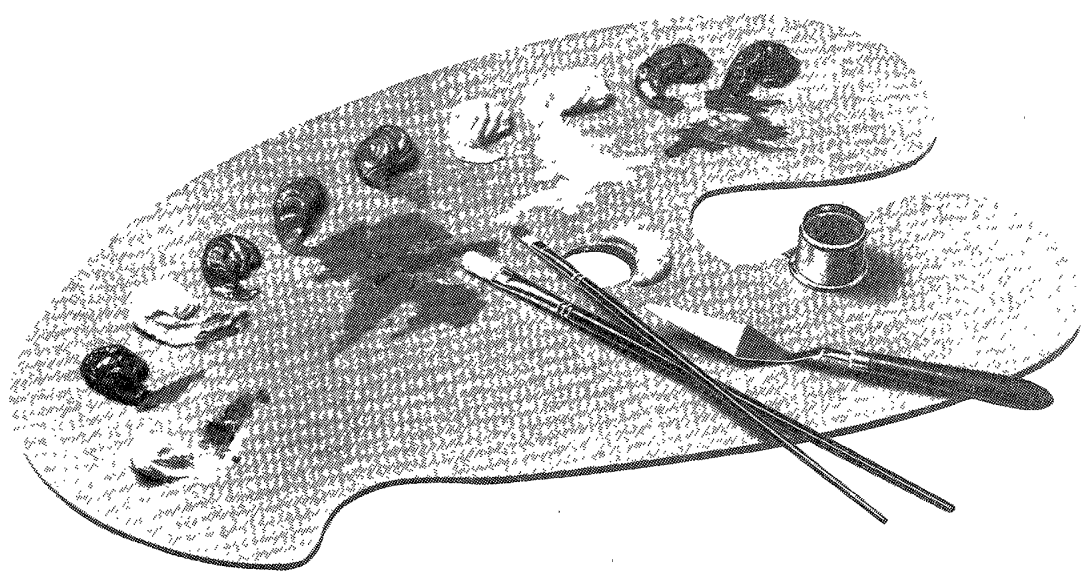
89년 도시빈민운동은 이제서야 그 이름에 걸맞는 조직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실은 이땅의 생산노동대중인 노동자, 농민과 함께 가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강 해 성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회원>

■ 대학생활과 팬타라이너①

“마티스가 된 기분!
오늘은 붓이 쭉쭉 나가니...”



팬타라이너와 함께 상쾌한 하루
역시, 창작활동은 기분에 좌우되죠.
큰다섯이 좋은 날은 그림도 쑥쑥!
오후까지도 이렇게 기분 좋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건 팬타라이너 때문이죠.
팬타라이너 살짝 붙여두면,
하루종일 팬타가 깨끗, 기분이 산뜻!
지금 나는 21세기의 마티스가 된 기분.

팬타라이너 이따때 편리해요

평소생기는 질문비율을 깨끗이 흡수해
산뜻한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또 여행중, 팬티교환이 어려울 때,
생리직전이나 끝무렵에 편리하게
사용하십시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통일 논의를 민족의 것으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의의와 투쟁방향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참가 문제를 놓고 음주부터 정부와 학생 측의 공방이 신문지상을 어지럽게 수놓고 있다. 지난 88년 6월과 8월 학생회담담국 토론회대행진을 통해 반도 남단을 통일의 열기로 달구었던 청년학생들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참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자 국민들은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에서는 아직도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청년학생축전(이하 축전)의 성격과 축전에 대한 전대협의 참가의 의의 및 준비계획을 알아보고 축전 참가의 원칙과 조국통일 운동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축전의 성격>
제2차세계대전 직후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의 이념 밑에 발족한 세계 청년학생들의 축전운동은 세계의 모든 대륙과 지역, 나라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가장 광범한 국제적 화합운동,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발전해왔다.

1973년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10차 축전부터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정한 축전은 전세계 각국에서 청년들이 힘을 합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제국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자주주권을 변혁하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이념을 지향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전으로 이념 평안 개최는 1987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전반기 축전준비 사업은 작년 3월에서 조직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통일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행사내용으로는 정치행사,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가 있고 이행사들은 국제행사와 국내행사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정치행사의 특징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반대, 「핵무기는 세계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다」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체육행사의 특징은 세계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을 위한 것으로 「평안축전」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체육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위에서 살펴본것들이 1백70여개국 청년학생들이 반제연대성, 평화·친선의 기치아래 자주권을 위한 국제적 화합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준비한 축전은 정부측에서 얘기하듯 일

부사회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운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각국에서 반제연대성·평화·친선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모든 행사의 내용이 규정되어진다. 평화와 친선을 위한 축전의 체육행사와 각종 행사에는 1, 2등이 없다. 금메달을 위해 악물복용까지 시술하지 않는 상업주의적 올림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진정한 평화와 친선의 하나됨을 만들기 위한 순수한 행사라 할 수 있다.

反帝 연대성, 조국통일 운동과 결합해내야 축전참가 방해는 현정권의 반통일성 自認

<청년학생축전 참가가 갖는 의의>
전대협은 지난 2월23일자지사를 통해 축전 참가의사와 계획을 밝혔다. 이속에서 전대협이 축전에 참가하는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평양에서 열리는 축전을 계기로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북방정책을 통해 두개의 한국조작책들을 벌이는 미-노태우 정권의 반통일 책동이 배기울 박고 통일발달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루어나는 장으로 만들어 보자. 둘째, 「한반도」는 식이나 「가서 실컷 물어나 보

자」는 감상적 차원은 깨끗이 극복되어야 한다. 세계, 사전·사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기운을 모으고 다시 확산시키는 작업으로 보고대회를 가질 수있을 것이다. 셋째, 노정권이 축전참가를 정치적으로 악용, 대국민 선전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한의 올림픽 때문에 국제적 경쟁에서 밀리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축전을 유치했다는등의 「통일의 밤」에 재부리기」식 감정적 선동행

태를 극복하여 실제적인 평화를 조국강토에 뿌리내리는 화해와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 세계, 남과 북의 자주적인 교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내어 분단의 세월속에 갇혀 버린 민족의 혈액은 오직 통일주체인 7천만 민족의 힘에 의해서만 다시 하나로 이어질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 주는 민족화해·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같은 의의를 가진 축전의 참가원칙과 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전의 참가가 통

일운동의 진전을 가져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는 단순히 청년학생간의 문제가 아닌 통일을 꾀하는 모든 애국인족세력의 문제이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참가절의, 방식, 정치토론회, 참가자 선출을 내 중보로 대중들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그형식은 전대협에서 제기한 축전참가에 관한 공정보고에 따르자. 둘째, 「한반도」는 식이나 「가서 실컷 물어나 보

자」는 감상적 차원은 깨끗이 극복되어야 한다. 세계, 사전·사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기운을 모으고 다시 확산시키는 작업으로 보고대회를 가질 수있을 것이다. 셋째, 노정권이 축전참가를 정치적으로 악용, 대국민 선전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한의 올림픽 때문에 국제적 경쟁에서 밀리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축전을 유치했다는등의 「통일의 밤」에 재부리기」식 감정적 선동행

태를 극복하여 실제적인 평화를 조국강토에 뿌리내리는 화해와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 세계, 남과 북의 자주적인 교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내어 분단의 세월속에 갇혀 버린 민족의 혈액은 오직 통일주체인 7천만 민족의 힘에 의해서만 다시 하나로 이어질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 주는 민족화해·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같은 의의를 가진 축전의 참가원칙과 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전의 참가가 통

일운동의 진전을 가져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는 단순히 청년학생간의 문제가 아닌 통일을 꾀하는 모든 애국인족세력의 문제이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참가절의, 방식, 정치토론회, 참가자 선출을 내 중보로 대중들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그형식은 전대협에서 제기한 축전참가에 관한 공정보고에 따르자. 둘째, 「한반도」는 식이나 「가서 실컷 물어나 보

자」는 감상적 차원은 깨끗이 극복되어야 한다. 세계, 사전·사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기운을 모으고 다시 확산시키는 작업으로 보고대회를 가질 수있을 것이다. 셋째, 노정권이 축전참가를 정치적으로 악용, 대국민 선전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한의 올림픽 때문에 국제적 경쟁에서 밀리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축전을 유치했다는등의 「통일의 밤」에 재부리기」식 감정적 선동행

태를 극복하여 실제적인 평화를 조국강토에 뿌리내리는 화해와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 세계, 남과 북의 자주적인 교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내어 분단의 세월속에 갇혀 버린 민족의 혈액은 오직 통일주체인 7천만 민족의 힘에 의해서만 다시 하나로 이어질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 주는 민족화해·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같은 의의를 가진 축전의 참가원칙과 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전의 참가가 통

일운동의 진전을 가져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는 단순히 청년학생간의 문제가 아닌 통일을 꾀하는 모든 애국인족세력의 문제이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참가절의, 방식, 정치토론회, 참가자 선출을 내 중보로 대중들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그형식은 전대협에서 제기한 축전참가에 관한 공정보고에 따르자. 둘째, 「한반도」는 식이나 「가서 실컷 물어나 보

자」는 감상적 차원은 깨끗이 극복되어야 한다. 세계, 사전·사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기운을 모으고 다시 확산시키는 작업으로 보고대회를 가질 수있을 것이다. 셋째, 노정권이 축전참가를 정치적으로 악용, 대국민 선전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한의 올림픽 때문에 국제적 경쟁에서 밀리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축전을 유치했다는등의 「통일의 밤」에 재부리기」식 감정적 선동행

태를 극복하여 실제적인 평화를 조국강토에 뿌리내리는 화해와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 세계, 남과 북의 자주적인 교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내어 분단의 세월속에 갇혀 버린 민족의 혈액은 오직 통일주체인 7천만 민족의 힘에 의해서만 다시 하나로 이어질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 주는 민족화해·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같은 의의를 가진 축전의 참가원칙과 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전의 참가가 통



반제연대성, 평화와친선을위하여!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은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기치로 1백70여개국 2만여 청년학생들이 참가할 「가서 실컷 물어나 보자」는 감상적 차원은 깨끗이 극복되어야 한다. 세계, 사전·사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기운을 모으고 다시 확산시키는 작업으로 보고대회를 가질 수있을 것이다. 셋째, 노정권이 축전참가를 정치적으로 악용, 대국민 선전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한의 올림픽 때문에 국제적 경쟁에서 밀리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축전을 유치했다는등의 「통일의 밤」에 재부리기」식 감정적 선동행

태를 극복하여 실제적인 평화를 조국강토에 뿌리내리는 화해와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 세계, 남과 북의 자주적인 교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내어 분단의 세월속에 갇혀 버린 민족의 혈액은 오직 통일주체인 7천만 민족의 힘에 의해서만 다시 하나로 이어질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 주는 민족화해·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같은 의의를 가진 축전의 참가원칙과 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전의 참가가 통

일운동의 진전을 가져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는 단순히 청년학생간의 문제가 아닌 통일을 꾀하는 모든 애국인족세력의 문제이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참가절의, 방식, 정치토론회, 참가자 선출을 내 중보로 대중들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그형식은 전대협에서 제기한 축전참가에 관한 공정보고에 따르자. 둘째, 「한반도」는 식이나 「가서 실컷 물어나 보

특별기고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태어났다. 우리의 부모, 조부모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은 농촌



朱宗桓 <농과대학교수·농업경제>

이었다. 공업은 농업의 분리가 지나지 않았다. 농업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우리민족은 수천년을 살아왔다. 지금과 같은 근대사회는 전체인구의 1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농촌인구가 이렇게 줄기시작한 것은 불과 백년밖에 되지않았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공업과 그밖의 모든경

제의 근원이 숨어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은 무엇으로 지탱되는가. 사람이 먹지않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먹는 것에 있고, 먹는 것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에서 나오며, 그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라하면, 결론은 자명하지 않는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정책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월1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1만여명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여 많은 농민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축产的 출력을 높고 추축이 부성한다. 역사적으로 이나라 농민들은 평소에는 농촌이라는 사농도 마다하지 않는 유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이 묶여 자기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좀처럼

이르렀을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일대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사태를 이진경에 이르렀는가. 이 사건이 터진 후 정치권의 관심은 농민문제로 쏠려있고, 언론기관들도 일제히 경정적으로 농민문제 특집을 띄어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꼭 그때뿐이 아니라도 일관한 사람들은 이미 그 원인을 다 알고 있다. 권력에 길들여진 농민들이

농민들을 그토록 격분하게 만든 것은 살벌히 미군정적 학을 배후에서 市場經濟原理의 근본도 제대로 알지못한 채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라고 알아보고 과거와 같이 적당히 말잔만만으로 넘길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의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농민들을 그토록 격분하게 만든 것은 살벌히 미군정적 학을 배후에서 市場經濟原理의 근본도 제대로 알지못한 채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여의도시위는 反農 정책에 대한 울분의 폭발

저희 「태창」은 젊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질기고 편하고 부드러운 것, 바로 「버펄로」입니다. Buffalo

골덴, 우단, 데님, 슈퍼스트레치
언제 어디서나 활동적인 젊음—그들의 행동은 합치고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젊은이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젊음의 마당에서 활동적인 젊음이 원하는 것—그것은 순수하고 뜨거운 정열과 생수의 활력, 그리고 친하고 맹시있는 캐주얼라이프입니다. 젊음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있는 기업「태창」—태창이 생산하는 100%순면 원단 「버펄로」골덴, 우단, 데님, 슈퍼스트레치는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캐주얼복입니다.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주얼웨어의 80%가 버펄로 원단입니다. SS패션, 반도패션, 동요이 등 국내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주얼웨어와 봉제수업업체의 대부분이 저희 「버펄로」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표들과 어깨를 겨루는 한국의 캐주얼웨어와 굳이 「버펄로」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젊은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펄로」원단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동남아 등 세계 40여개국에 수출되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튼마크가 순면 100%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질기고 부드러운 캐주얼복지 「버펄로」는 대한방직회사가 100%순면제품임을 보장하는 코튼마크 제품으로 그 뛰어난 품질이 자랑입니다. 순면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입을수록 애착이 가는 산뜻한 색감과 흡수성, 통기성, 방풍성이 뛰어나고 값 또한 4개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입어도 멋있이는 경제적 활동복입니다.

태창이 생산하는 원단의 종류
버펄로 골덴 가는 공에서 굵은 공까지 다양한 종류와 색상이 있으며 골다는 세로는 바지보다는 상의를 주로 입습니다.
버펄로 우단 100%순면으로 특수한 표면치로 부드러운 촉감과 아름다운 색상이 일품입니다.
버펄로 데님 (부부진·갈라진)프린트 골덴·우단·데님 세련미에 불이 조음에 빠져 인제나 소계 및 최하 Corduroy 및 Velveteen의 1/16 비율로 데님과 상하복과 다양한 제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담은 캐주얼복 색상이 섹서투데로 변하지 않는



태창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태창여상 장학금사업은 어려운 여건때문에 배우지 못한 중·고등학생을 위해 공과대학에 설립된 장학금사업의 일환으로, 54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선발, 부산 및 경남도내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원들의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동과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지원 태창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사원에게는 단돈 100만원의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원들이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돕고 있습니다. 회사와 가정을 하나로 묶는 내집마련지원의 결과로 사원들의 업무의욕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150여명의 사원들이 내집을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기업상 정립 지역사회발전과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에 투철한 태창은 은탑 산업은행, 새마을중앙협동조합, 국민은행중앙지점, 서울중앙은행 등에 대출을 받았으며, 오늘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업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2,500여 중·고등학생을 무료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본사(부산) 512-2211~8 서울사무소 735-5935~9

남북통일에 이르기까지 민족해방문학의 현단계

민족해방문학의 현단계

◇글쓰는 차례

1. 해방공간의 문학과 분단문학
2. 80년대 문학운동의 지평
3. 북한의 문예정책과 북한문학의 이해
4. 해외교포문학의 향방
5. 올바른 통일문학사의 정립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문학의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동 질성의 발견에 그 근거를 둔다. 민족해방문학은 남·북통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학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분단원이 메를로기 속에서 한 체제에 생성하며 민족을 이질화시키는 모 든 문화행태의 극복과 그동안 패 색되고 은폐되었던 주류난 문화 사의 복원으로 통일문학을 이루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큰 정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문학의 올바른 연구작업이다. 해방후 3년 에 걸친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 어졌던 다양한 문화논의와 『民族文學』의 창출은 바로 앞으로의 민족해방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당시 초기에 이루어졌던 문 학의 성향을 보면 처음에는 단 순히 해방의 기쁨만을 노래한 작 품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 한 초기의 양상은 1946년을 경 과하면서 미군정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자 민족문학의 수립이 라는 새로운 기치아래 창작방법 으로서는 진보적 리얼리즘의 의 식적 지도가 높게 되는데 이 시기 의 민족문학수립이라는 문화 운동정책은 뒤에 구체화되어 인 민적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으로 가 나가기에 된다. 1948년에 이 르서서는 문화운동에 가담했던 대 다수의 문인들이 투옥되거나 북 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에따라 남한에서는 일제하에서부 터 길들여진 소위 『순수문학』에 다 가 반공문학이 혼용, 어설론주 류를 이루며 민족문학의 문제의 식이 희석화되어 버렸다.

그들은 처음엔 월북문인들을 순차적으로 허용했으나 이후 남로 당계열의 문인들, 즉 일파, 이원 조, 설정식등을 숙청시켜버림으로 써 민족문학운동의 전개를 어렵 게 하였다. 이리하여 북한문학은 그들의 문예이론인 주체론에이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종자론과 속 도전, 집체적 창작방법론등을 형 성해 나가면서 남한과는 양극화 된 문학사를 정립시켜 나갔다. 그들은 처음엔 월북문인들을 순차적으로 허용했으나 이후 남로 당계열의 문인들, 즉 일파, 이원 조, 설정식등을 숙청시켜버림으로 써 민족문학운동의 전개를 어렵 게 하였다. 이리하여 북한문학은 그들의 문예이론인 주체론에이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종자론과 속 도전, 집체적 창작방법론등을 형 성해 나가면서 남한과는 양극화 된 문학사를 정립시켜 나갔다.

야 할 때이며 실천성을 담보해 내는 것이 그 과제라 할 수 있 다. 통일문학의 전개를 위해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동안 연구과정에 있어 장벽이도 높았던 해외동포문학, 그것도 사 회주의권내에서 이루어지고있던 학식파들을 축적시키고 우리의 문 학사 속에 수용시켜야 한다는것 이다. 주로 연변 조선족 자치 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학 들은 분단극복, 통일문학의 커다 란 성과로서 민족통일의 한 주 축대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중 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미 80년대 들어와 그 벽이 다소 허물어져 김학철, 이근전, 김달수등 일련의 해외동포문인들 의 작품이 소개가 되고 화제가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연구작업이 좀더 진전되어 우리 민족의 해

대중화론과 리얼리즘 정착에 힘쓴 일파·한설야등 월북문인들 에 대한 복원과 연구는 운동과 문학과의 관계를 검증하며 실천 문학을 모색할수 있는 중요한 단 서가 될것이다

분단교착화가 마면되고 이후의 현대문학사는 분단문학의 일로써 치달는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르 러서는 분단극복문학운동의 움직임과 아울러 다시금 민족문학론 의 다양한 정경들이 부각되기시 작한다. 우선 그 논의중에 굵직한 호

방문학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잊혀졌던 문학사 속의 영역을 복원시켜야 한다. 즉, 일제시대 카프문학을 형성 했던 월북·남북작가는 그동안 이 메를로기적 억압으로 제대로 평 가받지 못해왔다.



남북한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분단이 전의 카프문학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것이다.

를들 간주해보면 우선 소시민적 민족문학론과 민족적 민족문학론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세가지의 주류들을 들 수 있는데 대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주체의 설정에 있어 각기 조금씩 상이한 차이 점을 갖는다. 그 세 주류에 대 한 논의와 정립은 앞서도 논술 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 하기로 한다. 아홉은 민족문학을 주도해나갈 주체설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 함을 일견 올바른 문학론의 전 개를 위한 논의로 받아들여질수 있었지만 이제 통일문학의 새로 운 위상을 정립하는 이 시점에 있어 새롭게 제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안되게 되었다. 즉, 전사 의 민족문학논쟁은 좀더 광범위 한 역사적, 민중적 확산을 꾀하

소위 월북작가라고 지목되어 온 작가는 주로 일제시대 사회주의 문학을 고수했던 작가들로 일 화, 김남천, 설정식, 이기연, 한설야 등인데 이들에 대한 해금논의는 우리 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는 한 역사적 성과 의 복원이며 민족문학의 제 태를 찾는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들 월북문인들은 대중화 론의 제기와 더불어 리얼리즘의 정착화에도 오늘의 한국문학을 발전 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들에대한 복원과 연 구는 분단문학의 극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운동과 문화와의 관 계를 검증, 실천문학을 모색할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 러한 연구작업의 축적은 그동안 금제된 문학사적 불구들을 극복

달하나 천지에

절망하지 말자

崔 淳 烈

<사범대교수·국어교육>



밤하중 집에서책이라도 좀 보리라 맘먹고 앉아있는날엔 우리아이들이 온 동네 친구들을 끌 어모아 제방에서 온 통 밥식을 피우는 통에 망치기 일쑤였다. 끝내 참다못 해 그 방으로 틀 어가서 개입을 하 게된다. 으레 그렇 듯이 아이들의 놀이마당에 어른들이 끼어들면 그 판은 사들하게 깨어지기 마 려이다. 왜 책상 위에서 타잔소리를 지르며 책 켜리는가, 왜 의자밑에 기어들어가 쥔 글고 있는가, 왜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야단인가 하는 따위의 정책은 그들에게 얼마나 야속했을까. 아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놀이의 질서가 있다. 어른들의 눈에는 난장판일지 모르나그 들은 엄연한 명분과 타당성을 갖춘 한 판이다. 나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이 필요 한만큼 아이들에게도 분방한 놀이의 마 당이 요긴하다. 밖에는 잔뜩개비가 질척 거리고, 그렇다고 밖에서 나가 놀다가바 지가떨어에 흠뻑젖어있다고 문히는 날엔또 한 야단치고,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라마는 활기가 넘치는 터에... 어찌란 말인가.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마구 눈을 부라리고 덤빌 수는 없다. 언젠가 아이 들은 미련의 인격체로 교육의 대상이된다고 보면 그들의 자유분방한 욕구수절 제되고 또한 통제될 여지도 있겠다. 그러나 교육은 피교육자를 교육자의 이 상적 가치로 끌어 맞추어 억지충만함으로 만들기도하는 그들의 이상을 가지고있는 한 사회를 어떤 변혁의지로 실 천해 나가느냐, 인간해방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있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전술하였듯이 우리의 모 든 문화적 성과와 목표는 통일 조국 대장정에 함께 동참하는일이며 민족 통일성외복에 필요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문화사의 정립은 매우수 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미 북 한에서는 통일문화사를 위해 그 들 나름대로의 작업을 편 바있다. 그들은 『조선통사』를통해 5단 계로 분단문화사를 구분하고 있 는데 새조선 건설기문화, 조국해방전쟁시기문화, 전후복구건설시기문화의 기초건설문화, 사회주의 전 면적 건설시기문화등의 구분이다. 특 그들 나름대로의 평가수준을 확보하지는 못하고있다하더라도 통 일문학을 위한 진일보의 의미를 우리에게 먼저준다. 따라서 우리의 현대문학사도 궁 정적인통일논의에 발맞추어 새로 이 그 내용과 구조를 재편해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만 참다운 민족해방문학 을 위한 구체적 작업은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기존문학사의 복 원문제이다. 즉 앞서도 설명하였

한세해왔는지를홍예적 통틀히 반성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권위주의의 침상은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체통과 면목의 하세를 빌어 피교육자에게 승복을 바랄 수는 없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기분을 해아려본 적이 있는가. 그들과 단란한놀이로 허 심편화하게 대화해본적이 있는가. 그들이 아우성치는 까닭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보면이 있는가. 이들이 애 비의 하상을 땀히 눈치채고있지않은가. 이참에 오늘날 대학의 모습을 떠올리 지 않을수없다. 어느 하나 통찰없이 없 은게없다. 교과과정에서부터 등록금문제까 지 모든것에 도마 위에 올라있다. 그것도 거의다 학생들로부터 문제는 제기되고있 다. 과연 아이들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생 트집을 부리는걸까. 온갖 대학을 뒤쫓아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일까. 대학의 근본 부터 부정되는 중대한 위기가 온것일까 절망하지 말자. 이제부터 교육들이 나서서 일을 수습 해야 한다. 대학은 그동안 완벽한 외부 의 보호와 아래 눈먼 삼선처럼 회색의 멍들을 끌리고 있지 않았는지 엄숙히 반 성해볼 일이다. 문교부의 지불보증 아래 학칙의 준수라는 지휘봉만 휘저어 왔던 일을 뜯어내어 자학할 생각은 없다. 진정 대학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그 러기위해선 교수들 모두가 민주화·자주 화의 실천적 의지를 모으고 구체화 하 는데 앞장서야 한다. 위장된 화평과 소심한 자기검열의 타성 속에서 개인적 무사안일의 추구에 급급했던 나를 고백 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날의 무기력을 변명하고 호도하기 보다는 오늘의 정적으로 일어서볼 일이다. 우선 나무부터 잘라야 한다. 물론 번잡스러 운 구조나 제스처가 아니라, 새학기를 준비하는 강의안에서부터 시작해왔다. 그 래 일방적 다스림과 다그침을 얼마나했 사해 왔으며, 그 다스림의 틀속에서 사기바친다는 아랑곳없이 분수없는 권위를

만화·만평·컷기자모집 3일 마감

東大新聞社

김 성 배 <문화평론가>

동학광장

문화마진

「관객모독」공연

극단76극장은 오는 31일까지 신진극장서 「관객모독」을 상연한다. 종래의 전통적 연극에 대한 비판적 환상을 위주로 한 호트 극의 부정으로 출발한 이 연극은 출제기도 무대장 치도 소도구도없이 언어자체 를 작품으로 하는 연극으로 오후 4시, 7시2회 상연한다.

「제8요일」공연

극단예담에서는 개관 1주년 기념작 「제8요일」을 오는 3일부터 한달간 예담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니힐한 체제속에서 박탈된 인간기본권 회복을 위해 불 부일지는 짧은 지성의 리얼한 외식구조를 예리하게 조 사한 이작품은 마케 후라스 코 일자를 차인국씨가 각색 한 것으로 평일 4시30분, 7시30분 공연일은 4시, 7시 2회 상연한다.

「넛츠」공연

극단로페에서는 톨스토이와

한마당 시연회

예술극장 한마당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제2회 민족극한마당에 노동현장 마 당작 「아버지의 행운」을 공 연하게된다. (문의처: 313-1256)

「블랙 코메디」공연

극단훈주는 오늘 (1일)부 터 오는14일까지 피터 셰퍼 원작의 「블랙코메디」를 문예 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뮤지컬「님의 침묵」공연

마당 세실극장은 3·1운 동 70주년을 맞아 조선일보 사와 공동으로 창작뮤지컬 「님의 침묵」을 오늘부터 세 실극장에서 무기한 공연한다.

「제3기」생모집

한글문화교류사회교육원에서 오는13일부터 내달 8일까 지 지역활동을 위한 여성교 실을 개설, 학생들을 모집한 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실 시될 이 강좌에서는 지역운

청소년 지도자 모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89년도 제16기 본 과정과 제17기 통합과정의 청 소년활동지도자 연수교육대상 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각 각 80명. 참가비는 본과정 2 만원, 통합과정 4만원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3·8세계 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전진대회」가 오는 5 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 강대학교 강당에서 서울지역 노동조합들의회의여성국·전국노 동조합연맹여성부·한국여성노 동자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제4기 「민족여 성학교」생모집

한글문화교류사회교육원에서 오는13일부터 내달 8일까 지 지역활동을 위한 여성교 실을 개설, 학생들을 모집한 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실 시될 이 강좌에서는 지역운

서도회「춘계전시회」

서도회는 오는 29일부터 내 달 1일까지 춘계전시회를 교 내 상설전시관에서 가지며, 이 전시회에서는 지도교수 지도강사의작품도 전시전시된 다. (관심있는 89학번을 대 상으로 신임학원도 모집중)

제3인론기자모집

민주언론의 기수 제3연론 에서는 황신한 89학번 신입 사를 모집한다. (장소는 동 아리연합회실내)

동학광장이 새로와집니다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 한 계시점이었던 동학광장이 보다 새롭고 알찬 모습 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학기자서」「아라바이트」란이 신설됩니다 학교생활을 통해 독자여러분이 느껴왔던 생각이나 건 의사항을 「동학기자서」에 원고지 2~3매내외로 투고해 주십시오. -「동문알림」의내용을 조정합니다 그동안 동문회소식을 실었던 동문알림이 이제부터 본 책을 졸업하고 사회각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선배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문소식」란으로 조정됩니다. -「과동정」「타대학소식」란이 빠집니다

— 文 化 部

Faculty, students, administrators, business and governmental leaders are cordially invited to become members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JOIN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The first national public policy research center with its primary focus on the Korean Presidency. With historical and analytical perspective, the Center examines bo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relationships with the Congress, and organization. Membership includes: invitations to Annual Leadership Conference, National Symposium, and Center Lecture Series, Regional Conferences.

Name _____ Han Moon
Mailing Address _____
Organization _____
Telephone _____

This is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upon receipt of this form, the center will mail you a membership card and begin a year's membership. Membership is tax deductible in whatever category you elect.

- ☐ Student W20,000 ☐ Faculty W30,000 ☐ Politician W 50,000
- ☐ Supporting W70,000 ☐ Chairman of the group W1,000,000

Please send with remittance to Membership Secretary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HOTEL LOTTE WORLD
40-1, Chamsil-Dong, Songpa -Ku, Seoul, Korea

총장선거·재단혁신이 쟁점화

전대학인 의견수용할 제도적 보장시급

학원자주화과정 (이하 학자주)의 성과물인 합의사항의 각 기구들이 방학중에도 계속적인 활동과 함께 학교측과 대화를 가졌다. 하지만 주체역량의 미비와 방학으로 인해 대중참여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방법 모색 부족, 학생지도부의 성급한 판단, 학교측의 불성실한 입장표명 및 합의사항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투쟁물질을 철저히 확보하지 못했으나 교과과정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고 등록금통제과총장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측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체계적인 사업진행으로 혁신적인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이하 교과위)는 지난달22일 등록발전을 위한 합의문에 조인함으로써 89학년도 1학기부터 서울·경주캠퍼스 모두 실시하게 됐다.

지난 1월4일 교수 (대표: 김현규, 교무학과) 학생 (대표: 이응순, 경영학과) 대표들 각 6인이 학술사무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2월9일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갖고 「등록발전합의문」에 의거, 신규교수초빙, 교과과정운영 등에 관한 합의내용을 도출했다.

이 합의내용에 따르면 9과목에 걸친 교양선과목 중점과 필수과목의 이수 변경을 핵심으로 작업이 행해졌다. 인문과학분야에는 「사관의 이해」, 「변증법적 유물론」, 「과학철학」, 사회과학분야에는 「사회과학방법론」, 「정치경제학의 이해」, 「노자관계론」, 자연과학분야에는 「과학과 철학」, 예능분야 「예술론」, 「건강과 생활」 등이 신설과 미과중심의 기능주의적 학문의 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과학과목이 「개인과 국

가」, 「한국사」, 「체육」과 여학생과목들이 교양필수에서 교양선택으로 바뀌게 돼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문자성의 자유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한편 신설강좌의 담당자 추천은 해당학과 교과과정위에서 일임,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됐다. 특히 1학기부터 적용되는 신규교수 초빙에 있어서는 이력서 및 연구업적의 공개를 통해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나 학교측에서 실시한 수강신청 (지난달22~24일)에는 신설교과목의 누락, 학점변경 이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측의 실천의지를 의심해 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이 내세운 물적 구조혁신의 한 거점으로 재단전입금확보, 정부예산확충 등으로 주장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단교당국과 학생대표들은 지난 1월26일부터 등록금정책에 관한

이해다 학교측은 조속한 해결의 시도를 학생들은 타대학처럼 등록금통제위원회를 전면내세우지 못했던 으로부터 각각 탈피해 재단전입금확보의 실질적 대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서로 등록금인상의 불가피성과 불가의방향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학자주에서 올해 총장선거를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민주적 총장선출을 통한 인적구조혁신부정도 일고 있다.

학생들은 민주적 총장선거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자주 합의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 집회 등을 통한 선전활동을 통해 개강후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전망이다.

학생들은 교수회초청에 명시된 있는 총장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단의 입김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의결의 진정한 주체로 학생·동문은 후보추천과 신임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학자주활동은 학교·학생측의 힘겨운 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측은 학생대중의 요구를 지향하지 못한 바도 있었고, 신임등록금 인상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 가시적 변화물의 부족 등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학교측은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태도와 합의결과와 학사운영에의 적극 반영을 않고 있어 학자주이행의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등록금 전체교수회의의 선출로 교수회의의 세 운영 방법이 주목되고 있다.

동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원자주화과정의 이해의 공유속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자주의 충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창준기자〉

「교과위」 교과과정 운영등 성과 전체교수회 새출발 역할기대

교과위 신장시켰다. 공개강의를 통해 2인을 복수추천하고 중앙교과과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쳐 시행했다.

또한 합의사항에 따라 새학기부터는 학교교과위 의결권을 보장받고 이수학점이 조정되며 교양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

합의에 들어가 학교측으로부터 「등록금정책」 학생들과 상의하여 이행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합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등록금고지서 발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교측이 제시한 인상요인은 물가인상, 시

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생이 직접 부총장을 뽑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이 89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결산투표가

부총장 후보 金炯秀·閔丙天 교수

경주 교수회총회서 선출 부총장 임기만료따라

부총장의 임기가 지난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부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주캠퍼스 교수회 「제2차임시총회」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교수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강당(Ⅱ)에서 열렸다.

1, 2차 투표에서 金炯秀(국문과), 閔丙天(前부총장 정의과)교수가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중 1명을李智冠총장이 선임하게 된다.

후보로 선출됐다. 25일의 2차투표에는 89명의 교수가 참석, 2차투표투를 위한 사전발표, 학생대표의 입장발표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1, 2차 투표에서 金炯秀(국문과), 閔丙天(前부총장 정의과)교수가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중 1명을李智冠총장이 선임하게 된다.

임시총회의 첫째날인 24일 오후 2시엔 67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각 단대별 추천을 받은 교수들에 의해 6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 權度(법학)교수의 사회로 투표에 들어갔다.

교수들의 후보추천후 「부총장 후보 선출안 제3장 10조」 규정에서, 1차투표에서 金炯秀교수 24표, 閔丙天교수 20표, 申鉉濟(영문과)교수 12표로 3명의 교수가 부총장

후보로 선출됐다. 25일의 2차투표에는 89명의 교수가 참석, 2차투표투를 위한 사전발표, 학생대표의 입장발표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1, 2차 투표에서 金炯秀(국문과), 閔丙天(前부총장 정의과)교수가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중 1명을李智冠총장이 선임하게 된다.

임시총회의 첫째날인 24일 오후 2시엔 67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각 단대별 추천을 받은 교수들에 의해 6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 權度(법학)교수의 사회로 투표에 들어갔다.

교수들의 후보추천후 「부총장 후보 선출안 제3장 10조」 규정에서, 1차투표에서 金炯秀교수 24표, 閔丙天교수 20표, 申鉉濟(영문과)교수 12표로 3명의 교수가 부총장

후보로 선출됐다. 25일의 2차투표에는 89명의 교수가 참석, 2차투표투를 위한 사전발표, 학생대표의 입장발표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1, 2차 투표에서 金炯秀(국문과), 閔丙天(前부총장 정의과)교수가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중 1명을李智冠총장이 선임하게 된다.

임시총회의 첫째날인 24일 오후 2시엔 67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각 단대별 추천을 받은 교수들에 의해 6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 權度(법학)교수의 사회로 투표에 들어갔다.

교수들의 후보추천후 「부총장 후보 선출안 제3장 10조」 규정에서, 1차투표에서 金炯秀교수 24표, 閔丙天교수 20표, 申鉉濟(영문과)교수 12표로 3명의 교수가 부총장

「독재지원 미국규탄시민대회」열려

지난27일 학생 시민등 1천여명 참석

「광주학살·경제침략주범 미국규탄및 독재지원 부시방한 반대 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지난 27일 오후 2시 본교를 비롯한 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서울지역대학과 시민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대운동장에서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이하민협) 등 10개 단체가 주관한 결의대회 열렸다.

민협 사무처장 안희대씨의 사회로 1부 집회와 2부 평화행진으로 나뉘어 진행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협위원장 이재호씨는 대회사

를 통해 「단순히 부시 개인이 방한한대가 아닌 민족의 자주를 위해 미국의 대한정책을 규탄한다」면서 「국민의 지지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기

반을 외세에 두고있는 현 노태우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 집회를 마친 학생·여학생등 1천여명은 평화행진로를벌이다최후루한을 쏘며 저지하는 전경에 맞서 중문앞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

었다.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쳐

지난 23·24일 학교·총학주최로 각각 열려

서울캠퍼스 「신입생 적응지도」가 학교-총학으로 주최자가 나뉘어 지난23~24일 양일간 교내일원에서 실시됐다.

학교측주최 적응지도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4시간가량 교내일원에서 있었다.

각 단대별로 실시된 이날 적응지도에서는 신입생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과연습, 학장·학과장및 교수소개, 학사안내, 학생회소개, 수강신청 등이 있었다.

또 총학생회주최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 신입생을 비롯한 1학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에서 열렸다.

식전행사로 응원단 「백상」의 가요가 응원가 감동후 오후 2시, 총학생회장 최재성(법과4)군의 인사 및 11개단과대 학생회장 소개순서를 가졌다.

이어 여익구 (사학67) 동문 초청 강연 「올바른 대학생활의 정립을 위하여」를 가졌는데 이 강연회서 몸담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진정으로 고고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노래동요 「아리랑」의 민중가요감상, 학자주위원장 이승인 (영문3) 군의 「학자주란 무엇인가」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다.

오후 4시, 광주학생소재의 영화 「오! 꿈의나라」 상영을 90회-김양운 (의예2) ▲학술-정성원 (국사3) ▲홍보-김미진 (수교 2) ▲문화-김상규 (조경2) ▲체육-오세윤 (국문3) ▲총교-김정수 (법과3) ▲학자주위원장-이원우 (한문3) 군이 선임됐다.

▲기회-김대진 (의예2) ▲사

본동안 가진것을 끝으로 체육관에서의 행사를 모두 마치고 공대앞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흥쾌와 함께 뒤흘이행사를 가졌다.

한편 경주캠퍼스 89학년도 신입생 적응지도는 각 단대별, 학과별로 오는 6, 7일 양일간 교내일원에서 실시된다.

이런 적응지도는 단대별, 학과별로 나뉘어 전반적인 학교소개, 전학이념구현에 대한 특강, 신체검사등이 실시되는 데 첫째날인 6일에는 단대

별로 오전9시부터 인문대(문무관) 자연대 (소강당 I) 의과대 (실험실) 가 오후 1시부터는 법경대 (소강당 II), 상경대 (문무관), 한의대 (한의학관) 순으로 시행된다. 둘째날인 7일에는 각 학과별로 지도교수로부터 전학이념구현에 관한 특강, 학교소개, 수강신청 방법등에 관한 설명순서를 갖는다.

또 신체검사는 6일에는 법경대, 한의대, 인문대, 7일엔 상경대, 자연대, 의과대 순으로 문무관에서 실시한다.

복측육교) 군등 4명, 복싱부 군등 2명, 설상사수에 김성태 (월강 사육교) 군이 들어왔다.

연영 과설립 30周年 안도라 기념공연

연극영화과는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한 30주년 기념공연을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특유의 현대화가 막스 폴리쉬의 작품인 「안도라」 (ANDORRA:이석원 연출)를 연영과 스투디오에서 1일 2회 (오후 3시, 오후 6시30분) 공연한다.

「로동신문」공개 도서관 2층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지난달 8일부터 본교 도서관 2층 참고열람실에서 학생·교수 등에게 공개열람되고 있다.

스쿨버스 증차

경주 3대로 늘어

경주캠퍼스는 스쿨버스를 지난달14일 1대 증차해 총 3대로 늘어났다.

경주캠퍼스 제 5대총학생회 집행부가 지난달11일 백상제관과 관련, 학생들의 불신임 (수교 2) ▲문화-김상규 (조경2) ▲체육-오세윤 (국문3) ▲총교-김정수 (법과3) ▲학자주위원장-이원우 (한문3) 군이 선임됐다.

▲기회-김대진 (의예2) ▲사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이 시대에 최후의 자유민주신봉자(?)들의 역사적조우

